이열치열, 이노예 치노예

(창36:1~43)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9.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오늘 창세기 36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열치열, 이노예 치노예>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열치열, 이노예 치노예'
'이노예 치노예'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을 응용해본 것입니다.
이열치열은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것을 찾지만 뜨거운 것을 먹어서 땀을 한 번 빼주면 몸이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응용해서 이냉치냉이라는 말도 만들어서 쓰는 모양입니다.
찰 한(寒)자를 써서 이한치한이라고도 하고, 찰 냉(冷)자를 써서 이냉치냉이라고도 하는데, 추운 겨울에 냉면을 먹는다든지 하는데,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것과 같은 다스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겨울에 냉면을 먹어보면 더 추워요. 이가 떨릴 정도로 춥습니다. 이냉치냉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응용해서 '이노예 치노예'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열로서 열을 다스리든지 현실적인 노예상태로 마음의 노예상태를 다스린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노예 상태로 치노예 상태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노예인 상태인데 현실의 자유가 주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님이 히틀러를 미친 운전기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시장 한 복판을 마구잡이로 몰고 다니는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되고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운동을 하시다가 순교하십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친 사람에게 기관단총을 줘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난사를 하고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노예상태인데 마음이 노예상태인 사람에게 현실적, 상황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 노예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끝없이 악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노예라면 현실적으로도 노예상태가 주어져서 제어를 해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노예 치노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이삭이 죽은 이야기가 언급되자마자 에서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대략 500년가량 됩니다.
이 500년가량이라는 기간에 동생 야곱의 족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간입니까?
이제 곧바로 요셉과 열 한 형제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팔았다가 총리가 되고 기근이 임하고,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을 거치는 동안에 200~250만 명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에서 자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에서가 세일 산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고 자손이 늘어가면서 세일 산에 거하던 호리 족속들을 정복하고 통합해서 완전히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오늘 본장의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그렇게 건설된 에돔 왕국의 왕들과 군주들이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기간에 앞으로 펼쳐질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역사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후손들의 500년 역사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왕정체제의 왕국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50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주전 1,000년대에 와서야 사울 왕이 첫 왕이 되면서 왕정체제를 이룹니다.
선택받은 족속인 이스라엘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서 자손들은 500년이나 앞선 시대에 벌써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선민 하겠습니까?
장자권도 탈취하고, 축복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도 피하게 해주셨지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게 해서 선민이면 뭐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서네는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서울대에 들어가고 딸도 서울대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다 잘됐는데, 우리 집은 자식 셋이 있는데 서울대는커녕 SKY 중에 들어간 자식도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뒤집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선민이면 뭐합니까?
노예생활 430년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만 받았어요.
에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도 세일 산이 좀 거친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왕정국가 체제를 갖추고 이미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책 중의 책이 성경이고 성경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시느냐?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비해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왜 노예의 역사로 빠져들어 가게 됩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36장 바로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이삭의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열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하는 패륜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의 패륜적 행동이 나오고 바로 붙어서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고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왜 르우벤의 패륜적 행동에 딱 붙여서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선민그룹인 이스라엘의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그 열두 아들 중에서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열두 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대표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 상태는 어디에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라헬에 대한 사랑이,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서 현무암이 되는 것처럼 싸늘하게 식은 상태를 바로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마음 가는대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선민이라는 구획을 정해놓고 그 구획 안에 몰아넣었지만 선민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민도 똑같이 마음 가는대로 하는데, 이게 왜 큰일이냐면 그 마음이 육체의 노예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예상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눈으로 본 라헬이 예쁘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마음에 라헬이 빨려듭니다. 찬물에 손을 대면 찬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라헬이 마음에 들어와서 닿으니 마음에 느낌이 주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14년 동안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선민이라면 이 14년 동안 라헬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라헬을 뿌리쳤어야 하는 것인데, 육체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라헬을 마음이 흡수해버리고 마음이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 가는대로 하는 것이고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 느끼는 것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이 노예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상태의 결과가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라헬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에, 장년 때에, 노년 때에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처럼 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산 생애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삶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신경을 쓰며 살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이 갖고 계신 가치관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평생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악다구니를 하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열심을 부리고 수고를 하고 살았는지 모를 일들에만 내 마음을 다 쏟았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요셉을 하나 빼놓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노예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노예생활이 왜 주어졌느냐?
에서는 왕정국가를 만들어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같은 기간에, 선민이라고 하는 굴레에 묶인 사람들은 비슷하게나마 발전은 못할지언정,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선민에게서 더 악이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번영을 요한계시록 할 때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건설이에요.
큰 음녀 바벨론의 성립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 가는대로 해서 생긴 번영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5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대로 마음이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예상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노예, 현실적인 노예 상태와 삶의 노예 상태로서의
치노예, 마음의 노예상태를 제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마음의 노예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민이 누굽니까?
이 마음의 노예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육체를 통해 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선민인데, 우리가 그 동안 출애굽 사건을 잘못 이해해왔던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왔었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나오니 해방이라고 알았습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주님의 십자가복음사건을 출애굽사건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상태는 진정으로 그냥 노예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육체에 매인 죄적 노예상태는 이미 애굽에서 노예생활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애굽에서의 노예상태는 죄의 노예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앞서서 마음이 죄의 노예상태가 되어있던 것을 다스리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애굽의 노예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유능하고 부유했던 집사님이 40대 초반에 1년간 암으로 투병하시던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내 머릿속의 암(뇌종양)이 내 마음의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노예상태는 앞서 있었던 마음의 노예상태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책이었고, 애굽에서의 노예상태가 죄의 노예상태인 것과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노예상태를 다스리는 방법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뒤로는 어떻게 바뀌어 집니까?
애굽에서는 신분이 노예로서 마음의 노예상태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상태였기 때문에 마음 가는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귀족이 지나갈 때에 '나도 저런 마차 좀 타봤으면'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외제차가 지나가면 '나도 저런 차 가져봤으면'하고 마음이 원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노예상태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히틀러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죽이고 남 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마음이 노예인 상태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낫고, 건강하기만 한 것보다도 가끔 아픈 것이 낫고, 자식들이 서울대를 가고 엘리트 코스만 달리는 것보다 실패하고 고민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마음이 노예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 시키면서 어떻게 바꾸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내 마음의 노예상태를 제어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이 가는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니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상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보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상태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왜 선민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에서는 선민이 아니니 내버려두신 상태였고, 선민이므로 마음의 노예상태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마음이 가는대로 가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해버리고 마는데, 앗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율법을 행할 때와 다른 것은 행동을 하거나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온 이야기는 선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사

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사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모습이 르우벤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모습으로부터 마음가는대로 살아가면 그야말로 70억의 히틀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온통 히틀러의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주시고 국가의 질서를 주시고 강권적인 질서유지의 방편도 허락해주셨지만 그것으로는 이방인의 세계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고, 선민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마음가는대로 살지 말고, 그 육체의 노예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딴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너머에서 마음을 두는 자들.
십자가 이쪽은 세상이고 십자가 너머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역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노예 치노예'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의 노예상태를 다스리고 억제하고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노예 치노예'의 상황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바람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노예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조그마한 생각조차도 육체에 끌려서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노예상태가 극복되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